

대한산업보건협회 경인지역본부, 보건관리전문기관 최초 'S등급'

고용노동부 민간재해예방기관 업무능력 평가 결과 발표



대한산업보건협회 경인지역본부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민간재해예방기관 업무능력 평가 'S등급'을 획득했다. 우리나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는 처음 있는 일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1월 25일 12개 분야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업무능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2개 분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과 야간특수건강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이다.

이 가운데 1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관리기전문기관 평가에서 대한산업보건협회 경인지역본부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2곳이 'S등급'을 받았다.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가 도입된 2018년 이후 'S등급'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23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서는 42곳이 'S등급'을 받았는데, 협회에서는 경인지역본부, 경기서부산업보건센터, 남부산업보건센터, 부산경남지역본부, 울산산업보건센터, 대구경북지역본부, 광주전남북지역본부, 전북산업보건센터, 충북산업보건센터 등 9곳이 포함됐다.

155개 기관 대상의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에서는 27곳이 'S등급'을 받았고, 협회에서는 본부, 경인지역본부, 부산경남지역본부, 대전충남북지역본부 등 4곳이 'S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는 절대평가를 통한 5등급(S~D) 체계로, S등급(매우우수)/A등급(우수)/B등급(보통)/C등급(미흡)/D등급(불량)으로 구분한다. 운영체계(200점), 기술지도의 충실성(400점), 업무성과(400점), 가/감점(+300점)으로 평가해 점수대별로 등급을 부여한다. S등급(900점 이상), A등급(800~899점), B등급(700~799점), C등급(600~699점), D등급(600점 미만) 순이다.